

도 의존하지 않고, 다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나의 지식으로 조국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해질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영광은 오로지 나의 것일 테죠.”

노인

이보게, 재능은 출신 가문이나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일세. 아니 어쩌면 재능이란 훨씬 막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또 어디서나 대중의 존경을 받게 해주니까. 하지만 재능을 얻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법이네. 온갖 종류의 궁핍을 겪고, 안팎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극도로 섬세한 감수성이 있어야만, 또 동시대 사람들의 꾀박을 이겨내야만 획득되는 것이야. 프랑스에서는 법의를 입은 자가 군인의 명예를 질시하지 않고, 군인은 바닷사람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모두가 자기는 기지가 넘친다 자부하는 까닭에 자네가 가는 길을 막으려 들 걸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말했나? 하지만 땅에서 한 단도 더 되는 밀을 수확해내는 이야말로 책 한 권을 주는 이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게야.

폴

아! 이 파파야 나무를 심었던 여인은 이 숲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지어서 주었을 것보다 더 유용하고 더 따뜻한 신